

종단소식

조계종

직지사 스님·기관장 간담

김천 직지사(주지 녹원)는 13일 김천시내 합천식당에서 기관장과 상주지역 주지스님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성보문화재 보존과 보수 △지역개발로 인한 사찰환경보존 대응책 △DMF시대의 사찰운영문제 △전법도량 순회법회의의 건등 각종 현안문제가 논의됐다.

한편 직지사는 20일 구미, 24일 김천 등 5곳의 말사스님들과 기관장과의 간담회를 마련할 계획이다.

봉선사 신도회 운영회의

남양주 봉선사(주지 말운)는 25일 오후 3시 청풍루에서 신도회 운영위원회의를 연다. 이날 회의에서는 회칙개정안 심의, 각 말사 신도회 창립안 등 각종 현안들이 다뤄질 예정이다.

태고종

종단운영 4대지표 밝히

총무원장 인곡스님(사진)은 지난 6일 한국불교신문과 신년대담을 가진 자리에서 △종단의 체질개선 △기관조직의 정비 △승방 불교대학 설립 △재정안정 확보 등을 지표로 올 한해 총무원 운영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스님은 종단발전과 번영을 위해 화합과 애정심을 바탕으로 한 총도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호응을 당부했다.

천태종

서울 5개사찰 합동법회

성통사(주지 석구) 삼통사(주지 경찬) 명락사(주지 도인) 명화사·구강사(주지 월재) 등 서울지역 5개 사찰이 함께하는 대규모 합동법회가 3월 1일부터 매일 첫째 일요일 오전 11시 서초구 우면동 관문사에서 봉행된다.

석구스님은 "10년만에 위용을 드러낸 관문사의 최첨단 시설을 적극 활용하고 각 사찰 신도들간의 유대와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합동법회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알림

본란은 각 종단의 주요 공지사항 행사 등을 알리는 '종단소식' 란입니다. 각 종단 총무원 및 지방 총무원은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게재해 드립니다. 전화: (02)722-4162 팩스: (02)737-0698

매달 법회에는 4천여명의 신도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명락사 학생회 문화마당

명락사 학생회는 28일 오후 5시 문화강당에서 청소년문화마당 '보시의 밤'을 연다.

이날 행사에서는 50여명의 학생회 회원들이 준비한 기초교리퀴즈 및 합창, 풍토 등이 선보인다. 또 각 회원간의 자기 자랑도 펼쳐진다.

진각종

4대 종립학교 졸업식

심인종학교를 비롯한 학교법인 회당학원 산하 4개 종립학교 졸업식이 12~13일 양일에 걸쳐 일제히 거행됐다.

졸업식은 심인 중·고등학교 12일, 진선여중·고등학교 13일 대강당과 회당기념관에서 시간당 달리해 각각 열렸으며, 2천 36명의 졸업생이 배출됐다.

이날 졸업식에서는 전선경 학생 등 1백70여명이 성적 우수상을 수상했다.

회당장학생 선발요강 발표

회당장학회는 9일 제32기 장학생 선발요강을 발표했다. 선발기준은 고교 자녀로서 4년제 대학에 진학예정자로 신생활 및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가정형편이 어려운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접수마감은 21일까지. (02)913-0751~4

관음종

나라안녕기원 방생법회

묘각사(주지 홍파)는 11일 정릉본 일대에서 나라안녕과 동일을 기원하는 방생법회를 봉행했다.

홍파스님은 "사회, 경제적으로 난관에 부딪친 이때 위기극복을 위해 불자들이 작은 힘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하자"고 당부했다.

총화종

화엄종 장학회 이사회

화엄종장학회와 화엄승가장학재단(이사장 정희수)은 13일 총무원에서 이사회를 열고 예산 결산 승인 및 장학생 선발에 대해 논의했다.

이사회는 고등학생 70명, 대학생 8명에게 총 4천 5백여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키로 결의했다.

“올해도 풍년 무병 발원”

천안 천불암 주지 '대보를 축제' 현장

지신밟기·웃놀이·달맞이 등 즐거운 한때 온동네 불심가득...해마다 불우이웃돕기도

정월대보름인 11일 오전 10시 천안시 목천면 지산리 동구나무 근처, 중년의 보살들이 가마솥에 장작을 지피고 있는 가운데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노인, 엄마손에 이끌려 나온 어린이, 시골리 집안일을 마무리하고 나온 40~50대의 거사들 1백여명이 마을입구를 가득 채웠다. 모두 이웃사촌이지만 처음 만난 사이처럼 반갑게 인사했다.

천불암(주지 인경)이 마련한 '정월대보름 지산축제'의 현장. 농한기로 마땅한 놀이거리가 없던 탓인지 뜻밖의 많은 주민들이 몰렸다. 때문에 웃놀이대회를 위해 마련한 명석을 몇 개 더 급조해야 했다. 이날 축제는 천불암 주지 인경스님이 집전하는 당산제로 막이 올랐고 풍물놀이패를 앞세워 가가호호를 방문하며 무사안녕을 기원하는 지신밟기가 이어졌다.

“올해도 농사가 대풍하고 무병하게 잘 살아봅시다.” 신명나게 마을 한바퀴를 돈 주민들은 천불암에서 마련한 공양을 마치고 동구나무 앞에 모여앉았다. 이제 웃놀이패가 벌여줄 차례다. 올해 웃놀이대회에는 목은달력 뒷면을 이용해 만든 'IMF 웃판'이 등장해 농촌까지 파고든 경제난을 실감케 했다. “스님, 도가 나오면 정리하고 됩니다. 잘 던지세요.” 인경스님이 웃을 던지려는 순간 팀원들이 조연하고 상대편은 정리하고만 기다린다. 도가 나오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행히 같이 나와 정리하고 란 말판을 피하는 순간, 나날한 것이 덩실덩실 어깨춤을 추며 제법 재미있었다. “천불암은 작지만 큰 절이다”고 자랑했다. 이밖



작했다. 초창기에는 일부 주민들의 반발도 있었지만 이제는 모든 주민들이 기다리는 마을 잔치날. 이날은 천불암의 보살행으로 인해 2년 전부터는 지산리 이장 천불암 사무장을 맡게됐다. 이제는 사찰을 제외하고 지산리를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된 것이다. 이장 황연선씨(54)는 “지산리 전체가 부처님도량이나 마친가자다”며 “천불암은 작지만 큰 절이다”고 자랑했다. 이밖

◇천안 천불암은 11일 지산리 동구나무에서 정월대보름 지산 축제를 갖고 주민들과의 결속을 다졌다.

천안=김종근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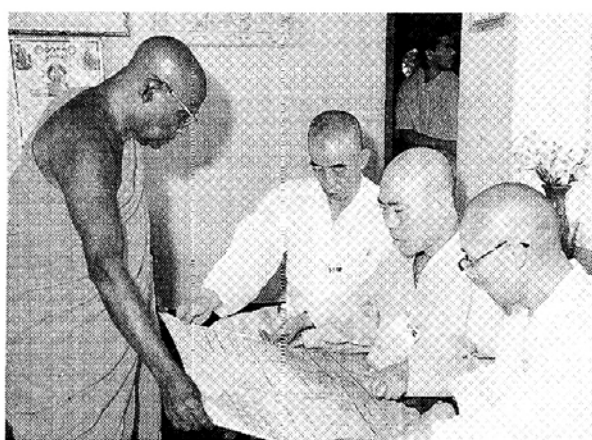
전국 사찰·복지단체 대보름 민속행사 다채

덕유사회복지관(관장 영담)이 8일 민속놀이 한마당을 시작으로 11일간 정월대보름에는 전국 사찰과 복지관 주관으로 다양한 행사가 펼쳐졌다.

대구광역시 사일주지연합회(회장 원병)는 경주 감포 나정해수욕장에서 정월대보름 달맞이 방생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80여 회원사찰 스님과 신도, 대구광역시 신도회 회원 등 8천여명의 사부대중이 동참, 생령존중의 자비정신 구현과 세대의 풍년을 염원했다. 인근 문무대왕을 앞바다에서는 경주 기림사(주지 법일) 주관으로 용왕대제가 봉행됐다.

연꽃마을(이사장 각현)도 용인양로원, 송파·마포경로식당 등에서 노인, 자원봉사자, 직원들이 함께 한 '정월 대보름 맞이 웃놀이 대회' 개최했다.

자양사회복지관(관장 공영애)은 오전 △무로 경로식당 개관식 및 오곡밥 나누기 △정월 대보름 잔치(웃놀이, 투호, 제기차기)를 실시했다. 웃놀이 1등상인 조계종 총무원상에 텔레비전이 수여되는 등 푸짐한 상품이 지역주민들을 즐겁게 했다.



◇한·스리랑카의 한국총회장 중순스님(오른쪽 끝)과 스리랑카총회장 다사난다스님이 스리랑카에 세워지고 있는 한국사찰의 설게도를 살펴보고 있다.

스리랑카에 북방불교대 건립

한스 불교교류회 추진...한국불교 전파기회

한·스불교문화우의교류회(회장 중순 해인사주지, 사단장 씨양종원)는 스리랑카에 건립중인 한국식 사찰이 40%의 공정을 보인 가운데 북방불교승가대학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스리랑카내에서는 첫 북방불교대학으로 서게될 이 대학은 한국불교를 중심으로한 불교를 교과과정으로, 학생인 스님 전원에 학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 대학은 스리랑카 정부의 인가를 득한 후 개교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10월 기공식을

갖고 공사중에 있는 한국식 사찰은 3층으로 연건평 3천7백평 규모. 법당과 한의과 대학이 들어선다.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 5~9일 제7차 한·스 불교문화우의교류대회가 스리랑카 콜롬보에서 열렸다.

한국측 대표로 해초스님(태고종 前총무원장) 대운스님(해동불교대학 학장) 등 40여명과 신도 20여명이 동참했으며, 스리랑카 스님 50여명과 불교성당장, 국회의원, 지방의원 등 2천5백여명이 운집, 대성황을 이뤘다.

백제불교 초전 법성포 동국대 최초 학술조명

전남 영광군 법성포 지역이 백제 불교의 첫 도래지일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제기돼 학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동국대 사찰조경연구소(소장 홍광표)는 11일 '백제불교 전파경로 고증을 위한 학술용역 중간보고회'에서 '영광 불갑사 대웅전 지붕의 용마루 중앙에 얹혀진 탐담오의 보주와 지명 등에서 인도 승려 마라나타가 법성포로 들어온 흔적을 찾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문화경관학적 측면에서 고찰한 영광불교 도래지설'을 보고한 홍광표교수에 따르면 불갑사 대웅전 지붕에 있는 탐담오의 보주는 우리나라 전통사찰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남방불교권 양식이다. 마라나타족의 영광도래지를 입증할 만한 자료라는 것. 홍교수는 마라나타가 모셔왔다는 영광군 법성면 진리리 버림밭에 있는 불두(佛頭)의 유물에도 대해서도 확실한 근거는 못 되지만 영광지역의 석질이 아닌 것으로 보아 다른 지역에서 가져왔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BBS 지방국 자체 인사권

이사 3명씩 배정도

그동안 자신의 목소리를 충분히 내지 못했던 불교방송 지방국의 권한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불교방송(사장 성낙승)은 11일 본사 회의실에서 불교방송 성낙승 사장, 불교대구방송 총괄국장 장작스님, 불교부산방송 이영구 본부장 등 4개지방국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모임을 갖고 △한 지방국당 3명의 이사배정 △인사권의 일부 독립행사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국 운영 규칙 개정에 합의했다. 이번 합의안이 이사회의 승인을

받게 되면 불교방송 지방국은 현재 불교부산방송등으로 돼 있는 명칭을 부산불교방송 등으로 변경할 수 있게 되며 계약직 직원에 한해 인사권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는 비종교계 논의된 지방국 방송예산에 대한 독자 집행권은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한편 불교방송은 26일 열릴 예정인 이사회에서 이같은 합의내용을 보고한 후 이사회의 결정여부에 따라 지방 불교방송 사장이야 따 등 의 문제를 마무리 지을 방침이다.

평택호 살리기 수륙대재

평택사람련·환경연합공동...문화 행사도

평택불교사망연합회(회장 성무, 수도사)와 평택환경운동연합(회장 정권)은 평택호 생태계 복원을 위해 27일 오후 2시 평택호관광지에서 선박 10척과 5백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빙어를 방류하고, 수륙대재 법회를 갖는다.

평택사람련등은 수질오염과 생태계 파괴로 사라질 빙어를 되살리는 운동을 1~2월 동안 펼치며 참가자를 공개 모집, 당일 모범적인 방생법회를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이번 행사는 조계종 환경부 평택시가 공동후원해 불자 시민 정부가 한마음이 되어 자연생태계 보전에 나선 것으로 주목된다.

이날 행사는 경기도 내수면 개발 연구소와 평택호 새마을양식계의 빙어방사, 평택사람련연합회의 평택호 살리기 기원 수륙대재, 전통연화 보존회의 연날리기 대회, 청담고등학교 농악단의 농악·바리춤연 등으로 다채롭게 꾸며져 문화제의 성격도 갖는다.

평택환경련에 따르면 1월까지의 평택호 환경 생태조사 결과 골재채취와 수질오염으로 물고기의 절반 이상이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양택생활풍수에 적용하면, 악운을 예방하고 행운을 불러들이는"

12품 팔상탑주(八相塔呪)의 비법과 그 불가사의한 효험력

팔상탑주(八相塔呪) 책자내용의 요점설명

- 1) 음택풍수측면 : 현재의 조상님 산소자리를 후손에게 받들어 일어나는 명당의 토질로 변화해 주는 방법수술
- 2) 양택풍수측면 :
 - ① 사업이 잘 안될때 이를 개선시키는 방법
 - ② 대학입시나 고시등 각종 시험에 합격하기를 원할 때
 - ③ 노처녀나 노총각이 결혼을 빨리하고자 원할때
 - ④ 부부간에 불화가 심할경우 부부금실을 좋게 해 주는 방법
 - ⑤ 자녀가 없어 아이갓기를 간절히 원할 때
 - ⑥ 불치병등을 완치시키고자할 때 풍수적인 조치방법
 - ⑦ 부동산등을 빨리 처분하기를 원할때
 - ⑧ 식당, 레스토랑, 다방, 술집, 가게, 상점, 슈퍼마켓, 약국, 여관, 호텔, 사우나, 목욕탕, 학원등 영업장소에 고객들이 증가하고 장사가 잘 되기를 원할 때

12품팔상탑주를 적용시켜 풍수적으로 그 개선방법과 해결책 제시!!

"스님들을 통해서만 그 효력이 발휘되는 팔상탑주 처방비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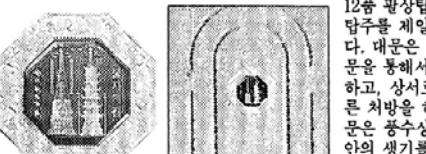
- ◎ 본 책자는 현재 전국에서 사상을 운영하고 계시는 스님들께 연락주시는대로 1권씩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 ◎ 현재 어려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스님의 신도들에게 풍수적으로 불가사의한 효험력을 나타내는 팔상탑주를 적용하여 신도들의 어려움을 해결하여 주십시오.
- ◎ 불자님들께는 본 책자를 요약한 카달로그 설명서를 보내드립니다.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앙과 재난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팔상탑주(八相塔呪)는 12품의 종류와 방위를 판독하는 나침반으로 구성

이 12품 팔상탑주 중에서 불자님들께서는 다음의설명대로는 2종류의 팔상탑주를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적용해 주시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팔상탑주는 이 두품을 먼저 적용하고나서 시간을 두고 경제적인 부담도 고려하시어 단계적으로 적용방법등을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두품만 먼저 적용하셔도 자신의 약한 운세가 변화되고 강해지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1) 대문용 팔상탑주를 대문앞에 부착해 주십시오.



·소재: 금속류에 순도99.9% 순금도금 ·규격: 8cm×8cm ·가격: 60,000원

집안에 생기가 흡입되고 모여들며 이 운기가 앞집이나 외부로 빠져나가거나 빼앗기지 않도록 작용하며, 그 시점부터 외부의 나쁜 기운을 완전히 분산시키고 제압하여 집안의 상스러운 기(氣)만을 들어오게 함으로써 출입자에게 강한 운(運)을 제공해 줍니다. 즉 운세가 약하거나 기운이 이리 인데 다시 운세가 강해지는 운맛이 역할을 시작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 차량 및 목걸이용 팔상탑주를 차안에 걸거나 몸에 지니고 다니십시오



·소재: 금속류에 순도99.9% 순금도금 ·규격: 5cm×5cm ·가격: 6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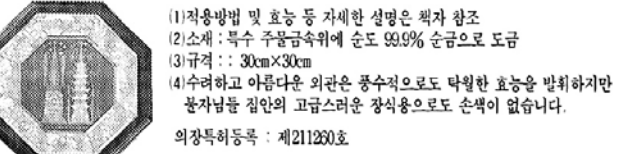
각 집마다 차량이 없는 집이 거의 없을 정도의 현실에서 차량사고에 대한 불안감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잠재의식의 하나일 것입니다. 사업발달도 좋고 가정의 번영도 중요하지만 차량사고로 인하여 불행한 일이 발생한다면 아무런 미도 없는 것입니다. 이제 각 가정마다 차량을 필수품이 되어 메이 놓으려해도 놓을 수 없는 실정에서 차량의 안전운행은 무엇보다 우선적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차량용 팔상탑주는 차안에 필히 걸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풍수적으로 큰 힘을 발휘하도록 조성된 차량용 팔상탑주는 앞면에 총괄팔상탑주, 뒷면에는 팔계만다라를 새겨넣어 차안에 걸게 되면 차량 내부 전체에 강력한 운(運)이 침투를 취함시키고 발생시켜 차안에 생기가 충만해 해주고 그로인해 운전자나 탑승자의 운기를 강하게 향상시켜 주므로써, 외부로부터의 사고발생에 대한 대처능력을 높여주고 예견해주는 작용을 하며 사고를 미연에 방지시키고 차량자체도 생기가 뿜어나고 활발적인 사고가 저절로 피해되도록 조절해 줍니다.

● 차량이 없는 분이나 혼자서 운전하시고 다니시는 분은 목에 걸거나 호주머니등에 넣고 다니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몸에 지니고 다니면 물진체에 생기가 흡입되어 자신에게 닥치는 재난과 질병과 불행이 차단되고 운기가 빨리는 효과를 얻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계약체결이나 시험보러갈때, 관제가 있거나 심재가 은 사람이 은 사람이 지니고 다니십시오. 특히 사업하시는 분이나 건강이 안 좋은 분, 긴절한 소원이 있는 분은 필히 지니고 다니시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팔상탑주란?

'사람에게는 인상(人相), 관상(觀相)이 있고 집에는 가상(家相)이 있다. 이 가상(家相)안의 여덟방위에는 주역의 팔괘에서 말하는 경상(吉相)인 팔상(八相)이 존재하고 있으며 팔상(八相)은 여덟가지의 인생사(人生事) (1)결혼 (2)명성 (3)부 (4)가정 (5)거직 (6)건로 (7)조력자 (8)자식을 뜻한다. 이 8방위의 방위를 각방위별로 크게 성취할 수 있도록 하는 교정수단으로서 팔괘의 팔각형안에 용양의 불탑다라 신주(神呪)와 오쌍수의 길(吉)한 색상과 상징물, 숫자, 주술(呪術)등을 도입하여 조성한것과 이곳에서 불가사의하고 신비스러운 위력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팔상탑주(八相塔呪)라 하였다.

3) 거실·사무실·상점 등의 중앙에 걸어두는 총괄 팔상탑주



1) 적용방법 및 효능 등 자세한 설명은 책자 참조
2) 소재: 복수 주물금속류에 순도 99.9% 순금으로 도금
3) 규격: 30cm×30cm
4) 수려하고 아름다운 외관은 풍수적으로도 탁월한 효능을 발휘하지만 불자님들 집안의 고급스러운 장식용으로도 손색이 없습니다.

4) 8방위 영역발전을 성취시켜주는 방위별 팔상탑주



◎ 팔상탑주(八相塔呪)의 효험력

강한 기(氣)의 생성과 균형, 팔괘와 용양의 조화, 심지어 오쌍수의 상생을 조화시킨 양택 생활풍수원리와 불탑신주(佛塔神呪)의 위력이 합일(合一)되어 조성된 12품의 팔상탑주(八相塔呪)는 가족이나 사무실, 가게 등에 적용하는 순간부터 그곳의 운(運)을 최상으로 만들어 놓고,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운세를 무엇이든 이를 수 있는 강한 운(運)의 소유자로 변화시킨다. 즉, 12품 팔상탑주(八相塔呪)의 비밀스럽고 불가사의한 효험력은 적용되는 순간부터 거주인들에게 닥치는 악운(惡運)을 예방시키고, 행운(幸運)을 가져오기 시작하며 결혼·재정·학업성취·대인관계 등에서 유익하게 작용하도록하고 직업면에서도 운(運)이 열리고 자손이 번성하고 명성을 얻게 하며 가족이 화목하게 되고 많은 부(富)를 쌓게 하여 행복한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가 있다.

삼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농원리 30-1(농원빌딩 3층)

전화 : (0335)34-9490, 34-9491 야간 : (0342)706-3060